

## 하이데거가 存在와 時間

朴相鉉

하이데거—의 實存哲學의 窮極의 目的은 實存(人間的 存在—現 存在)을 通하여 存在一般의 意味를 究明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存在一般을 對象으로하는 普遍的 基礎的 存在論은 特殊的 存在인 實存(現 存在)의 分析學을 基礎로 삼는 것이다.

모름지기 人間은 아모런 前提없이는 哲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的 무름(問)은 哲學的 探求를 意味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哲學的 探求是 被探究者로부터 先行的 指導를 받는 것이다. 人間的 存在(實存)에 對한 무름에 있어서 存在의 意味는 이미 우리에게 얼마큼이라도 處理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存在의 무름에 있어서 이미 先行하는 存在에 對한 「先知識」의 根源的 事實을 存在理解라고 부른다. 그런데 事實로서의 存在理解는 根本的 意味에 있어서의 固有한 前提가 아니라 다만 그것은 現 存在가 가지고 있는 漠然하고도 平均的인 先存在論的 事實이다. 現 存在(人間的 存在)가 如斯히 事實로서의 先存在論的 存在理解를 가지고 있으므로 因하여 存在一般의 意味를 對象삼는 基礎的 存在論은 當然히 現 存在의 分析學을 通路로 삼게 되는 것이다. 要컨대 存在問題는 先存在論的 存在理解를 徹底化(Radikalisierung) 或은 完成(Ausarbeitung)을 意味한다.

如斯히 存在問題를 解明함에 있어서 그 方法은 如何한 것인가. 存在論의 方法은 『事態自身에로!』의 格率을 標榜하는 現象學이다. 그런데 現 存在의 現象學에 있어서 事態自身에로 接近하는 方途는 解釋學的 性格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解釋한다 함은 卽 現 存在의 가지고 있는 漠然한 存在理解의 事實을 明瞭히 了解하는 일을 意味한다. 그런 故로 存在論으로서의 哲學은 現 存在의 解釋學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實存의 分析論으로부터 出發하는 『現象學的 存在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現象學的 存在論은 還元, 構成, 破壞의 세 길을 밟는다. 첫째로는 現 存在를 時間에 還元시키고, 둘째로는 存在一般의 解釋을 時間이란 持平에서 構成하며, 셋째로는 時間解釋을 基礎로하여 傳統的 存在學을 破壞하게 된다. 이

와 같은 巨大한 事業을 計劃한 하이텍가—는 『存在와 時間』에서는 첫 事業으로 거의 還元의 部分만을 取扱하였다. 還元은 두 階段으로 나누어져 첫 階段으로서는 人間的 存在(現 存在)의 存在가 關心인 것을 밝히고 둘째 階段으로서는 關心을 다시 時間性에 還元시키는 것이다.

이에 現 存在의 分析學을 敘述함에 있어서 注意를 要하는 것은 卽 實存 스스로의 了解에 關한 것은 實存的이라고 하고 實存의 存在論的 構造에 關한 것은 實存在論이라고 부르며 또한 實存의 存在性格은 특히 實存疇이라고 부른다. 이러함에 現 存在의 分析은 實存在論的 分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基礎的 存在論의 視點 밑에서 現 存在를 分析함에 있어서 그 出發點을那邊에서 發見할 것인가. 그것은 現 存在의 日常性的 樣相에서부터 現 存在의 分析을 始作하게 되는 것이다. 日常性에 있어서 現 存在는 實存하는 것인데 現 存在의 根本構造는 「世界—內—存在(In—der—Welt—sein)이다. 『現 存在는 世界안에 있다』(內界 內存在)의 「안에 있다」(內存在)라는 말은 物在者의 內部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現 存在의 한 實存로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親해진 世界에 棲息한다』는 뜻이다. 그다음 世界內存在에 있어서 世界란 말은 對象世界의 世界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그것은 事實的 現 存在가 살고 있는 그곳(Worin)을 意味한다 自己存在에 있어서 自己自身을 了解하는 —實存하는 現 存在는 世界內存在로서 自己가 살고 있는 그곳 卽 世界를 그때그때 이미 了解하고 있는 것이다. 日常的 現 存在가 살고 있는 環境世界안에서 만나는 存在者가 道具임을 發見할 수 있음도 世界를 그때그때 이미 熟知하므로 말미아마 可能的 것이다. 우리는 日常的으로는 環境世界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만나는 存在者는 物在者가 아니라 用在性이란 存在性格을 가진 道具이다. 우리는 道具를 交渉—配慮한다. 쉬웁게 말하자면 道具를 使用하는 것이다. 그런데 道具는 道具 全體性으로부터 한 道具로서 發見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道具(用在者)는 어떤 것을 指示하는 指示의 構造를 가지고 있다. 詳言하면 用在者는 어떤 것에 指示되므로써 그 指示的 事情을 完成하게 된다. 例컨대 독기는 독기 짚는 일에 있어서 그 事情을 가지고 독기 짚는 일은 못박는 일에, 못박는 [일]은 風雨를 막는 [일]에, 막는 [일]은 現 存在(人間)가 살기 爲하여 있는 것이다. 卽 그것은 現 存在의 存在의 可能性을 爲하여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用在者의 事情은 事情全體로부터 이미 決定되어져 있는 것이며 따라서 用在者의 事情의 그 指示的 關係를 더드며 본다면 그것들은 窮極에 있어서 現 存在의 存在에까지 到達하는 것이다. 世界內存在로서의 現 存在는 世界에 熟親하며 그때그때 이미 世界를 了解하므로 因하여 環境世界의 모든 用在者의 指示 全體성이

成立되어지는 것이다.

세계는 結局 現 存在가 그때그때 이미 熟知了解하고 있는 存在領域이며 따라서 그곳은 用在者가 用在者로서 存在할 수 있는 마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日常的으로 世界內存在로서의 現 存在는 누구이나 하면 다시 말하면 日常의 世界에서 現 存在의 主人은 누구이나 하면 그것은 自己自身이 아니라 他者이다. 他者이라 하면 一定한 他者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他者이든 이것을代表할수있는 他者이다. 누구인지 一定치 아니하지만 또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어떠한 한 누구가 우리의 日常性的 世界에 있어서 흔히 내 自身の 主人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누구는 이사람 저 사람도 아니요, 二三人도 아니요, 모든 사람의 總計도 아니다. 그 누구는 한 中性인 『사람』인 것이다. 日常的 生活에서는 우리 自己가 世界內存在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實은 『사람』이 世界內存在로서 存在하고 있다.

日常的으로는 現 存在는 自己를 發見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하겠지 할만한 行動을 하고 그것으로서 自己가 이것을 行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의 自己는 本來的 自己가 아니라 事實인즉 『사람』으로서의 自己이다. 『사람』으로서의 自己는 日常性에 있어서 差異性, 平均性, 平坦化, 責任免除, 迎合性 等の 存在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性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지만 無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現 存在가 日常的으로는 非本來的 存在樣式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現 存在의 實存 疇인 것이다. 現 存在는 如斯히 흔히하는 사람으로서 存在하고 있으나 우리는 本來的 自己로서 存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本來的 自己가 如何한 것인가를 究明하기 前에 좀 더 우리는 世界內存在라는 全體的 統一的 現象을 吟味할 必要가 있다. 世界內存在 (世界안에 있다)의 『안에 있다』(內存在)라는 것은 大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안에 있다』라는 觀點에서 世界內存在의 現象을 좀더 吟味하여보자. 本來 現 存在는 實在하므로서 모든 自己 아닌 存在者에 對하여서 뿐 아니라 自己自身에게까지 自己를 開示하고 있다. 現 存在는 世界內存在로서 그곳에 있다함은 自己의 存在를 開示하고 있음을 意味하며 따라서 『안에 있다』는 말은 開示를 意味한다.

現 存在가 世界內存在로서 그곳에 있다함은 그곳에 引渡되어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如斯히 現 存在가 그곳에 投出되어있음을 被投性이라고 부른다. 被投性은 그곳에 交付되어져있는 事實性을 意味한다. 現 存在는 이리 이러한 狀態에 있어서 이미 自己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常性에 있어서는 現 存在는 被投性에 向하지않고 그곳에서부터 멀리하고 있다. 何故인

가하면 氣分에 있어서 現 存在의 存在는 重荷로서 나타나는 까닭이다.

現 存在가 이러이러한 狀態에 있다는 狀態性은 늘 了解를 同伴하고 있다. 卽 現 存在는 自己의 存在를 了解하고 있다. 自己의 存在를 了解한다는 것은 自己의 存在의 『무엇』을 了解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了解한다는 것이다. 了解的 存在이란 말은 實存하는 存在이란 말이다. 了解한다는 것은 存在可能으로서의 現 存在의 存在樣式을 意味한다. 現 存在는 了解的 存在 卽 可能存在이다. 現 存在는 可能的 存在이니 만큼 世界에 配慮할 수 있으며 他者를 顧慮할 수 있으며 自己 自身の 存在可能에 關心할 수 있는 것이다. 如斯히 了解는 狀態性과 같이 實存疇가 되어있다. 現 存在가 世界的 存在로서 그곳에 있다. 或은 안에 있다는 그 根源的 性格은 了解와 狀態性을 通하여 밝히여졌으나 그러나 日常性에서는 現 存在는 自己自身으로부터 떠나 「世界」 옆에 頽落하여 있으며 따라서 흔히는 說話, 曖昧性, 好奇心의 存在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世界」에 頽落한 日常的 現 存在의 存在樣式을 非本來的 存在樣式이라고 한다.

以上에서 우리는 世界內存在의 構造를 여러 개의 契機에서 吟味해 왔으나 世界內存在는 本來 統一的 現象이니만큼 우리는 現 存在의 全體의 存在가 무엇인가를 究明하기로 하자.

現 存在는 事實的으로 實存하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現 存在는 狀態性에 있으면서 自己自身을 了解하는 可能的 存在의 存在樣式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日常的으로는 現 存在는 『사람』으로서의 非本來的 自己이다. 卽 現 存在는 늘 이미 頽落하여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現 存在의 平均的 日常의 存在는 頽落的, 開示的, 被投的, 投企的인 世界內存在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 存在의 日常性的 構造全體를 그 全體性에 있어서 把握함에 그것은 關心인 것이 顯現되어진다. 이와 같이 全體로서의 現 存在를 開示하는 方途는 不安이란 現象인데 이 不安의 全 現象을 通하여 現 存在가 事實的으로 實存하는 世界內存在인 것이 顯示되는 것이다. 現 存在의 存在는 關心이다. 다시 말하면 現 存在의 基礎的 存在論的 性格인 實存性, 事實性, 頽落 등이 現 存在의 存在構造를 統一하는 全體性 卽 關心을 構成한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現 存在의 存在가 關心인 것이 鮮明되었으며 따라서 世界內存在가 本質的으로 關心인 故로 用在者를 配慮하는 것이며 他者를 顧慮하는 것이다. 또한 現 存在가 自己存在에 關心하므로 因하여 本來的으로 도 또한 非本來的으로 도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現 存在의 存在構造의 全體性이 關心임을 알았으나 다시 한거름 나아가서 關心하는 現 存在의 全體性을 생각하여보자. 人間의 全體性

은 人間의 有限性을 밝힘으로서 樹立되는 것이다. 人間의 有限性 問題는 卽 死의 問題이다. 죽음에서 現 存在는 그 存在를 終了하는 故로 거기에서 同時에 現 存在의 全體性은 把握되어질 것이다. 死는 現 存在가 나의 것으로서 스사로 引受하지 않으면 안되는 存在可能을 意味한다. 存在可能으로서의 死는 肉體的 死가 아니라 도리혀 그것은 死에 關心하는 일 卽死에로의 存在인 것이다. 現 存在가 가장 自己的인 他者와 沒交涉的인 可能存在 卽 死에로의 存在에 徹底히 直面함에 있어서 現 存在의 全體性은 把握되어지는 것이다. 死는 우리에게 不安을 가지게 하므로 日常的 生活에 있어서는 現 存在는 死에로의 不安을 逃避하여 慰安을 求하며 따라서 頹落的 存在樣式을 取하게 된다.

이러한 日常的 死에로의 存在로부터 徹底히 死에로의 存在直面하는 일 卽 死에 對하여 態度를 取하는 일을 可能性에로의 先驅이라고 한다. 死에로의 先驅에 있어서 現 存在의 全體性은 把握되어질 것이다. 如斯한 死에로의 存在, 不安으로서의 現 存在 自身은 日常的 頹落的 現 存在에게는 良心의 소리로서 證示되는 것이다. 良心은 關心을 부르는 소리이다. 不安에 있는 現存自身이 부르는 것이다. 良心의 부름에 따라 『사람』自身은 自己的 가장 自己的인 本來的 自己로 復歸하는 것이다.

現 存在는 良心의 소리에 依하여 不安的 存在(有限的 存在)自身을 覺悟하는 것이다. 自己自身の 覺悟라 함은 卽 本來的 自己的 開示되어짐을 意味한다.

良心의 부르는 소리에 따라 現 存在는 自己自身을 覺悟하므로써 本來的 世界內存在로 돌아가는 것이며 따라서 用在者에로의 配慮와 他者에로의 顧慮는 어떠한 變樣을 받게 되는 것이다. 自己自身을 覺悟함에 있어서 現 存在의 處하고 있는 그곳은 狀況(Situation)으로서 顯示되며 따라서 世界는 本來的 世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狀況을 覺悟함에 있어서 現 存在의 本來的 存在는 成立하는 것인데 이 覺悟性은 우에 말한 死에로의 先驅와 結合되어질 것은 勿論이다. 要컨대 先驅的 覺悟性에 依하여 現 存在의 全體的 本來的 自己存在는 開示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現 存在의 存在를 關心이라고 規定하였는데 한거름 더 나아가 그 存在의 意味를 究明하여야 하겠다. 關心의 意味를 밝히기 爲하여 먼저 本來的 全體的 可能存在로서의 先驅的 覺悟性의 意味를 吟味하였다. 무엇이 先驅的 覺悟性을 可能케 하는가 現 存在의 先驅的 覺悟性은 現 存在가 그 가장 自己的인 可能性에 있어서 自己自身에 到來(auf sich zukommen) 하는 것인데 이 自己自身에 到來를 可能케 하는 그 可能性은 自己自身에 到

來시키는 (auf sich zukommen lassen)일인 未來의 根源的 現象인 것이다. 未來(zukunft)에 있어서 現 存在는 그 本來의 自己에 到來할 수 있으며 따라서 現 存在가 先驅的인 故로 未來의 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同時에 現 存在가 未來의 故로 現 存在의 先驅自體가 可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自己가 自己에 到來한다는 것은 現 存在의 實存性을 말하는 것인데 本來 現 存在는 事實的 實存이니만큼 自己가 自己에 到來한다는 實存性은 實은 自己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서 있을 수 있다는 事實性에 因하여 가능하다.

換言하면 自己에 到來함은 自己에 돌아오는(auruckkommen) 일이 아니면 안된다. 卽 이러한 根源的 意味에 있어서의 過去(Gewesenheit)는 未來로부터 成立하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現 存在가 世界안에 있는 存在者에 [交]涉하는 것은 用在者를 現前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可能케 하는 것이 現在(Gegenwart)인 것이다.

過去는 未來로부터 生起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過去の 未來는 現在를 成立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過去の 現在的 未來로서의 統一的 現象을 時間性이라고 부른다. 上述한 바와 같이 現 存在의 實存性은 未來에, 事實性은 過去에, 頽落은 現在에 各各 그 基礎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本質적으로 脫自的인 時間性은 現 存在의 存在를 可能시키는 領域(Horizont)이다. 卽 時間性은 關心의 意味가 된다는 것이다.

以上の 敘述에 依한 바와 같이 하이데거—의 『存在와 時間』은 主로 現 存在의 分析學만을 取扱하였는데 이 分析에 있어서 現 存在의 存在는 關心이라고 規定되었고 關心의 意味는 時間性인 것이다.